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송도연¹⁾ 전성은²⁾ 강영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문화에서 비롯된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댓글은 최근 약 10년간 업로드된 동영상으로부터 수집되었고, 선별된 64편의 동영상에서 추출된 19,876개의 댓글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동영상 주제 및 세부내용에 따른 댓글 경향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에 따라 자료 유형을 3가지(전체, 단편극, 대화)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워드는 전체 유형에서 ‘친구’, ‘인싸’, ‘공감’, 단편극 유형에서 ‘연기’, ‘공감’, ‘화장실’, 대화 유형에서 ‘친구’, ‘대학생활’, ‘이야기’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자료 유형별로 각각 3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전체 유형에서는 ‘전체 유형 대표 키워드(토픽1)’, ‘단편극 유형 대표 키워드(토픽2)’, ‘실제 대학생 댓글(토픽3)’이 나타났고, 단편극 유형에서는 ‘배우 및 연기 피드백(토픽1)’, ‘또래관계 이슈(토픽2)’, ‘화장실 혼잡 이슈(토픽3)’가 도출되었으며, 대화 유형에서는 ‘시청자 소감 및 응원(토픽1)’, ‘대학 적응 및 소속 이슈(토픽2)’, ‘대화 유형 고빈도 단어(토픽3)’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정분석 결과, 모든 자료 유형에 포함된 주요 감정 단어로 ‘힘들’, ‘눈물’, ‘사랑’, ‘재밌는’, ‘행복’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설계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고립 및 은둔, 아싸, 유튜브 댓글, 텍스트마이닝

1)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lavieenrose@jn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애착을 느끼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특히 전통적으로 집단의 소속이 강조되는 한국의 경우(박혜경, 김성아, 2018; 한규석, 1996),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 경험(예: 기쁨, 슬픔, 행복, 분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구재선, 김의철, 2006; 김지현 등, 1997; 이선아, 2017).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선택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6).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단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한규석, 1991; Triandis, 1989).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서적 안녕과 적응적인 자기개념의 형성은 집단 내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연결감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는 젊은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립 및 은둔 현상이란 사회적 접촉이나 주요 관계망이 부재한 상태의 사회적 고립(유연수, 이양희, 2001; Delisle, 1988)과 물리적 공간의 차단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거부하는 은둔(황순길 등, 2005; Sakai et al., 2004)을 통합한 용어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19~34세)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새롭게 제안된 학술 개념이다(김성아 등, 2022). 국내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고립 인구는 2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

는데(김주연, 2021), 2019년 3.1%였던 고립 청년의 비율이 2021년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성아, 2023). 이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이 취약 계층(예: 노인,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일깨우며 학술계의 관심이 청년층을 향하도록 이끌었다(유현경, 윤명숙, 2023; 조미형, 고아라, 2022; Cornwell & Waite, 2009). 실제로 청년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다룬 전체 논문 중 74.2%(75 편)가 2020년 이후에 출판되었는데(곽미선, 박지영, 2024), 은둔형 외톨이 연구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청년’이 핵심 주제어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동향의 변화도 확인되었다(김도희, 2024).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청년층의 고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학술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이 새로운 캠퍼스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다(이혜선 등, 2021; Hamza et al., 2021). 이를테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단체 활동 금지와 같은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축시키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김지은, 정미란, 2022; 양혜진, 2020).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 참여를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성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생 시기의 고립 및 은둔은 개인의 심리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박재서 등, 2021; Giovenco et al., 2022; Lukács, 2021). 특히 고립 및 은둔 현상은 한번 그 패턴에 접어들면 오랜 기간 지속 및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김성아, 2023). 따라서

청년기 초입의 대학생이 고립 및 은둔에 빠지는 것은 졸업 이후 사회 진출과 직장 적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청년 중 52.4%가 20대부터 은둔을 시작하였고, 그들 중 21.1%는 애초에 고등학생 때부터 은둔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홍 등, 2022). 즉, 고립 및 은둔 현상의 경우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김춘남 등, 2018; 유민상, 신동훈, 2021)이 재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청년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경험하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백형의 등, 2022; 이해선 등, 2021).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들의 전체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청년의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나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미선, 박지영, 2024; 김도희, 2024). 사회적 고립에 한하여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다른 심리학적 변인(예: 우울, 외로움, 인터넷 중독, 대인관계 문제, 학과소속감, 학업참여 등)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한정된 접근에만 그치고 있었다(e.g., 김민주, 이아라, 2021; 김은영, 한승우, 2023;

박재서 등, 2021; 백형의 등, 2022; 신지원 등, 2024; 이해선 등, 2021).

이처럼 특정 연구방법(예: 변인 간 상관연구)에 편향된 접근은 연구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최지영, 배라영, 2014).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자기보고식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옥분 등, 2008)는 점에서 질문지법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선행연구들 중 상당수는 표집 방법이나 표본 구성(예: 성비, 학년 간 비율)에 편중이 있어, 연구결과를 대학생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되었다(김은영, 한승우, 2023; 박재서 등, 2021; 백형의 등, 2022; 신지원 등, 2024; 이해선 등,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대학생 고립 및 은둔의 실제적 양상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전략으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이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단어 간의 연계성을 찾고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빅데이터에 숨겨진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송태민, 송주영, 2016; 임동훈, 2015; Feldman & Sanger, 2007).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키워드 기반 분석은 본질적으로 비모수 분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립이나 은둔처럼 연구 대상 자체를 표본화하기 어려운 주제에서는 오히려 모수통계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 집단따돌림의 경우에도 고립이나 은둔과 마찬가지로 외현적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마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강영신, 박주영, 2018), 이에 송도연 등(2023)은 네이버 지식iN Q&A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연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새로운 분석 방식으로 조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경우, 키워드의 단순 빈도에 의존하는 기초 분석을 넘어 다양한 심층 기법(예: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가능하게 하여 주요 키워드 분석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텍스트마이닝이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제한된 학술 자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예: 기사, 인터뷰 등)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수상, 2014).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학술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담론과 일반 대중의 인식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azer et al., 2009). 나아가 텍스트마이닝은 주요 문서 내용을 분석하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 논제나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김동성, 김종우, 2014; 이수상, 2014), 초기 단계의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 이슈나 담론, 논의 경향,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어왔다(e.g., 송도연 등, 2023; 양순미, 김성봉, 2023; 이유리, 권호인, 2023; 조수곤, 김성범, 2012; Kim & Delen, 2018; Nassirtoussi et al., 2014). 따라서 텍스트마이닝은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이

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편향성과 그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연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분석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대학생 집단의 고유한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보다 현실감 있게 탐색하기 위해 ‘아싸’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싸’란 아웃사이드(outsider)의 준말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남길임 등, 2019; 윤영훈, 2023). ‘아싸’의 주요 용례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대학생 집단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대학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박나영, 2020),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아싸가 대학 문화에서 주로 관찰되는 고유한 현상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송도연 등, 2023; 정백, 신혜성, 2022).

즉, ‘아싸’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단절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화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학술적 개념인 고립 및 은둔과 부분적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립은 주로 사회적 접촉이나 지지망이 부족한 상태, 즉 관계의 양적 결핍을 지칭하며, 은둔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행동 양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싸’를 곧바로 고립이나 은둔으로 환원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으며, 두 개념의 차이와 유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싸’를 학술적 개념의 대체어라기보다,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 가능한 문화적·언어적 매개로 보았다. 특히 ‘아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립 및 은둔이라는 개념어보다 연구 수행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의 경우 학술 문헌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싸’는 이러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해소하는 유효한 대안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대학’, ‘고립’, ‘은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월평균 약 35건이 검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실제 대학생 고립 및 은둔 문제를 다룬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즉, 학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의 담론도 현재까지는 청년층의 고립 및 은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 집단은 하나의 하위유형으로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아싸’라는 용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내에서 ‘대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송도연 등, 2023), 실제로 대학생에게 초점화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예: 네이버 지식iN Q&A, 유튜브 등)에 대한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서구에서는 자발적 고독(e.g., Weinstein et al., 2023)이나 긍정적 고독(e.g., Shiovitz-Ezra et al., 2024)과 같이 혼자 있음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을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싸’ 역시 자발적·비자발적 양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싸’는 특정 세대와 집단의 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언어적 표현이자 사회적 위치를 지칭하는 고유

한 현상이며, 아직 ‘자발적 아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싸’를 집단 내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주변화된 것으로 규정된 대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이슈와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워드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워드 간 연관성 및 구조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논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토픽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 의미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감정단어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서적 반응은 어떠한가?

방 법

분석대상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유튜브(YouTube)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댓글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 소감 등을 표현한 글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조수선, 2007; 최재서 등, 2023). 즉, 유튜브 댓글은 동영상 시청자 개개인의 의견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형성된 주요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유튜브는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2025년 기준 약 25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지 플랫폼이다(DataReportal, 2025; Statista, 2025). 2022년 전국 60,2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는 대형 OTT(Over-The-Top) 플랫폼 중 유튜브의 국내 이용자는 88.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이용자 91.8%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스미디어, 2023). 그중에서도 10대와 20대는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접속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경제, 연예/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의료/건강, 여가, 전문/학술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다(나스미디어, 2023). 특히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성향(예: 성별, 연령, 취향 등)의 이용자들이 유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인식, 김자미, 2021), 유튜브 댓글은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한 대학생 또래 집단의 실제 인식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텍스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동영상을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영상 선정 절차를 거쳤다. 첫째, 동영상 유형 중 숏폼(shorts-form)은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숏폼의 경우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무관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자료수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으로 아싸 대학생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싸 최O선』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숏폼 동영상이 검색되었으나, SNS상에서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나 대학 생활과 관련 없는 단순 유머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동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세부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실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동영상인지 최종적으로 필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제목이나 썸네일(thumbnail)¹⁾에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 검색되었더라도 동영상의 실제 내용이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무관할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댓글 자료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의 아싸 현상을 다루거나 인터넷 게임 방송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필터링되었는데, 특히 개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브이로그(v-log)²⁾ 동영상이 상당수 제외되었다. 즉, 브이로그의 경우 유명 유튜버가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1) 동영상을 직접 보기 전에 미리 제공되는 작은 이미지로, 동영상이나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2)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개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유하는 콘텐츠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LISTLY (Listly, 2024)를 활용하였다. 동영상 검색어는 ‘대학’과 함께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싸’를 사용하였고, 검색 기간은 최초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던 2013년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표 1은 검색어와 동영상 업로드 기간, 자료 유형별로 수집된 동영상과 댓글 양을 정리한 자료 수집 현황이다. 여기서 자료 유형은 동영상의 콘텐츠 유형을 뜻하는데, 콘텐츠 유형에 따라 동영상 전반의 분위기와 세부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청자의 반응이나 논의의 흐름 또한 변할 수 있으므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댓글 경향을 세분화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유형을 크게 3가지(전체, 단편극, 대화)로 분류하였다. 먼저 전체 유형은 말 그대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 유형이고, 단편극 유형은 연출된 가상의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일종의 상황극이나 드라마를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모아둔 유형이며, 대화 유형은 개인 혹은 다수의 출연자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를 모아둔 유형이다. 참고로 전체 유형에는 단편극 및 대화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만화, 개그맨의 콩트, 그리고 일부 브이로그 콘텐츠들도 포함되었다.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댓글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 RStudio 2022.02.0+443(Posit Team, 2022)과 Net-Miner 4.5(Cyram Inc, 2022)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은 데이터 전처리 이후 빈도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 모델링, 감정분석이 차례로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앞서 댓글 원자료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전처리(preprocessing)란 불용어를 삭제하고 유사 단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정제되지 않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실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순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유지영, 김우경, 2020; Lucas et al., 2015). 전처리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이 포함되었는데, 정확한 형태소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의도한 복합명사를 만들거나 분리하는 사용자 사전 작업과 무의미 단어나 특수문자 등을 삭제하는 불용어 삭제 작업, 같은 의미지만 다른 용어로 표현된 단어를 통일시키는 동의어 작업이 실시되었다(정유미 등, 2021). 사용자 사전 작업의 경우, ‘대학 생활’이나 ‘조별 과제’, ‘자발적 아싸’와 같이 각각 따로 인식되는 두 단어를 하나의 복합명사로 만들거나 ‘찐따연구’, ‘단무지소리’와 같이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불용어 삭제 작업

표 1. 자료수집 현황

검색어		대학 +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동영상 업로드 기간		2013.01.01. ~ 2024.03.02.					
자료 유형		전체		단편극		대화	
수집량	영상	64편	영상	14편	영상	34편	
	댓글	19,876개	댓글	5,986개	댓글	4,743개	

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문자, 숫자, 단모음·단자음, 조사 등을 제거하고, 검색어(예: 대학, 아싸)나 매체 관련 단어(예: 유튜브, 댓글, 채널, 구독), 해석에 불필요한 단어(예: 유튜브 이름, 인사말)를 분석과정에서 선별하여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작업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로, ‘선배님’을 ‘선배’로, ‘조과제’와 ‘쫓별과제’를 ‘조별과제’로 통일시켰다.

전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본격적인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댓글에 드러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1). 빈도분석에서는 추출된 단어의 단순 빈도 외에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함께 계산하였다. TF-IDF란 문서 내 단일 단어의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값이 클수록 문서의 핵심 주제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이성직, 김한준, 2009; Ramos, 2003).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20개 키워드는 단순 빈도와 TF-IDF 각각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고, TF-IDF 상위 100개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두 번째로,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키워드 간의 연관성과 연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은 언어가 단어 간의 관계를 이루는 네트워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다(이정락 등, 2022; Roberts, 1997).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노드(node)는 TF-IDF의

상위 20개 단어로 설정하였고, 3가지의 중심 구조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20개 단어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내의 핵심 노드(즉,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중심 구조 분석에는 노드 간 연결 수를 기반으로 어떤 소수의 노드에 링크가 집중되는지 파악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노드 간의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중심도를 파악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노드 간의 최단거리를 기반으로 중심도를 파악하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 포함되는데(배상훈 등, 2017; Barthelemy, 2004; Zhang & Luo, 2017), 각각의 지표를 비교하여 TD-IDF 상위 20개 단어 중 어떤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결 중심성 지표를 기준으로 TF-IDF 상위 20개 단어의 중심 구조를 네트워크 지도(network map)로 시각화하였다.

세 번째로, 전체 텍스트 내의 유의미한 키워드 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3). 토픽모델링이란 문서집합 내에서 유사성이 높은 텍스트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는 확률 모델 알고리즘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이다(박준형, 오효정, 2017; Blei et al., 2003). 토픽모델링 기법 중에서도 Blei와 동료들(2003)에 의해 개발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문서집합 내의 관찰된 변수를 바탕으로 문서의 구조를 파악하여 잠재된 변수를 추론하고, 문서별 주제와 각각의 주제 안에 포함될 단어의 분포 및 비율을 알아내는 알고리즘이다(김태경 등, 2016). 특히 토픽모델링은 통계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문서 집합, 즉 말뭉치(corpus) 안에서 핵심 주제와 내용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질적 자료(예: 역사적 기록, 문학저작,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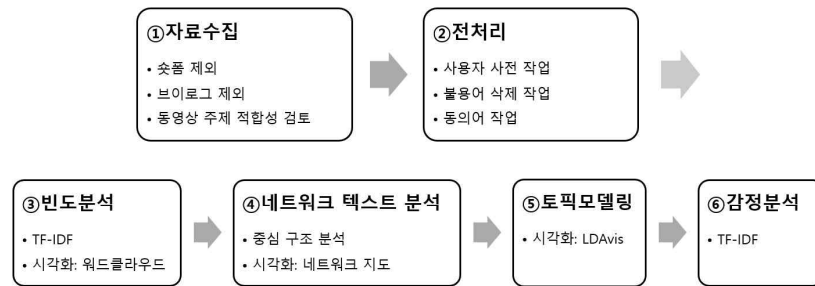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절차 경로도

기사, 일기자료 등)를 더욱 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남춘호, 2016). 토픽모델링의 최종 토픽 모형은 LDAvis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고, 토픽명과 토픽별 키워드는 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댓글 전반에 나타난 시청자들의 주요 감정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4). 감정분석은 감정사전을 토대로 텍스트 내의 감정 단어를 분류 및 계산하여 문서의 감정 경향을 파악하는 기법이다(백영민, 2020; 신호필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Data Intelligence Lab의 KNU 한국어 감성사전(온병원 등, 2018)을 활용하여 댓글 내의 감정 단어를 도출하였다. TF-IDF 상위 20개 감정 단어는 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자료수집부터 최종 분석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경로도이다.

결 과

빈도분석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체 유형 26,800개, 단편극 유형 8,939개, 대화 유형 9,040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표 2는 TF-IDF를 기준으로 자료 유형별 상위 20개 키워드를 정리한 것으로, 신조어나 은어의 뜻은 표 내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그림 2는 전체 유형의 TF-IDF 상위 100개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 모든 자료 유형에서 20위 안에 포함된 공통 상위 키워드는 총 8개(친구, 인싸, 이야기, 재밌어, 공감, 찐따, 혼자, 생각)가 확인되었다. 공통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야기’, ‘재밌어’, ‘공감’, ‘혼자’,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인지·정서적 반응(예: 공감, 느낀 점, 경험 회상)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었다. 예를 들어, “제 이야기랑 똑같네요^^”, “썰 풀어주는 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학생활 공감해요...”, “혼자 대학로 걷는 기분은 ...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들었는데 ...”와 같은 댓글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친구’, ‘인싸’, ‘찐따’는 단어 자체가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댓글 전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

표 2.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1	연기	710.0618	연기	459.6857	친구	172.5821
2	친구	643.9902	인싸	208.8536	인싸	135.7459
3	인싸 ³⁾	621.1265	공감	202.7633	이야기	117.0601
4	재밌어	505.7781	친구	191.7391	학번	115.1238
5	공감	497.2036	킹받네	171.832	재밌어	105.3159
6	전따 ⁴⁾	441.4168	화장실	170.1329	사랑	98.73467
7	화장실	426.9131	못보겠어	155.1887	감사	94.65397
8	사랑	393.8393	전따	139.3657	공감	92.82682
9	이야기	392.2433	혼자	133.9599	전따	79.76859
10	불쌍	378.2619	얼굴	129.835	대학생활	78.18715
11	눈물	372.4047	이야기	114.3735	생각	74.89946
12	못보겠어	338.457	눈물	100.3278	술자리	73.49947
13	혼밥 ⁵⁾	329.4924	미쳤다	98.48038	편입	73.32245
14	킹받네 ⁶⁾	309.6696	재밌어	95.48563	신입생	68.1495
15	조별과제	301.9536	뒷담	91.21753	복학	62.85426
16	생각	278.6886	생각	89.12597	혼밥	57.9374
17	귀엽	275.9204	배우	86.67315	혼자	57.59516
18	혼자	267.58	개꿀 ⁷⁾	79.95804	응원	52.68374
19	얼굴	243.2757	영혼	79.61983	동아리	52.41865
20	단무지	243.1362	불쌍	78.01275	강의	48.8434

어, ‘친구’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사실상 대학생들의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 3) 인사이더(insider)의 약자로,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
- 4) 찌질한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
- 5)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뜻하는 줄임말
- 6) 은근히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
- 7) 접두사 ‘개’와 은어로서의 ‘꿀’이 합쳐진 신조어

대부분의 댓글 반응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아싸의 반의어와 유의어로 쓰인 ‘인싸’와 ‘전따’는 자료 유형이나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각각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댓글 원문으로는 “나는 전따 친구도 없다”, “우선이는 전따고 ... 정말 아싸는 핵인싸임에도 사람들 모이는 자리 일부로 피하고 혼

로, 큰 이득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



그림 2. 워드클라우드

자있는걸 즐기는게 진짜 아싸임 ㅋㅋㅋ”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 상위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를 자료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유형 간의 비교에서 전체-단편극은 7개(연기, 화장실, 불쌍, 눈물, 못보겠어, 킹받네, 얼굴), 전체-대화는 2개(사랑, 혼밥)의 키워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편극 유형과 대화 유형 사이에는 일치하는 키워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도출된 키워드는 전체 유형 3개(조별과제, 귀엽, 단무지), 단편극 유형 5개(미쳤다, 뒷담, 배우, 개꿀, 영혼), 대화 유형 10개(학번, 감사, 대학생활, 술자리, 편입, 신입생, 복학, 응원, 동아리, 강의)가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낸 핵심 키워드 간의 중심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가지의 중심성 지수(연결/매개/근접 중심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지수 간의 순위 차이는 조금 있었으나 네트워크의 중

심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지수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 3은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한 것이다.

전체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인싸’, ‘공감’, ‘친구’, ‘혼밥’, ‘화장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싸’, ‘공감’, ‘친구’는 빈도분석에서 공통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도 중심 키워드로 확인되며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와 반응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대표 키워드가 사용된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본 결과, ‘인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정한 댓글 경향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대학생의 친구관계와 관련된 이슈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밥’과 ‘화장실’을 통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대표적인 대학 내 아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화장실’은 아싸 대학생이 몰래 밥을 먹는 장소로 설정되면서 ‘혼밥’과 연결된 중심 키워드로 도출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구나... 혼밥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훨씬 나은데 왜 굳이 화장실에서 먹지;;”, “겁나 슬퍼ㅜㅜㅜ 밥을 화장실에서ㅜㅜㅜ”와 같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싸’, ‘공감’, ‘친구’, ‘혼밥’, ‘화장실’이 전체 유형의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 중 ‘인싸’, ‘공감’, ‘친구’는 아싸 대학생의 관계적 맥락에

표 3.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연결 중심성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1	인싸	0.894737	인싸	0.789474	친구	0.947368
2	공감	0.842105	연기	0.736842	대학생활	0.894737
3	친구	0.842105	생각	0.684211	생각	0.894737
4	혼밥	0.842105	친구	0.684211	공감	0.789474
5	화장실	0.842105	화장실	0.684211	동아리	0.789474
6	생각	0.789474	공감	0.631579	이야기	0.789474
7	전따	0.789474	혼자	0.578947	재밌어	0.789474
8	연기	0.684211	영혼	0.526316	혼자	0.736842
9	이야기	0.684211	이야기	0.526316	신입생	0.684211
10	재밌어	0.684211	재밌어	0.526316	학번	0.684211
11	혼자	0.684211	전따	0.526316	감사	0.684211
12	사랑	0.631579	뒷담	0.421053	인싸	0.684211
13	얼굴	0.578947	배우	0.368421	복학	0.631579
14	조별과제	0.578947	얼굴	0.368421	편입	0.631579
15	불쌍	0.526316	눈물	0.263158	강의	0.578947
16	눈물	0.473684	킹받네	0.263158	혼밥	0.578947
17	킹받네	0.421053	못보겠어	0.157895	술자리	0.421053
18	귀엽	0.263158	미쳤다	0.105263	응원	0.368421
19	못보겠어	0.263158	불쌍	0.105263	전따	0.263158
20	단무지	0.210526	개꿀	0.000000	사랑	0.105263

관한 키워드가 하나의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고, ‘혼밥’과 ‘화장실’은 아싸 대학생의 생활적 맥락에 관한 키워드가 네트워크를 이룬 것이었다. 특히 ‘혼밥’과 ‘화장실’은 대학에서 고립되고 은둔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연결된 것이었다.

단편극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학 내 아

싸 현상을 다룬 단편극 콘텐츠의 주요 논의는 ‘인싸’, ‘연기’, ‘생각’, ‘친구’, ‘화장실’, ‘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중심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단편극에 대한 감상평이나 동영상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즉, 배우의 연기 혹은 극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인지·정서적 반응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이 단편극 유형의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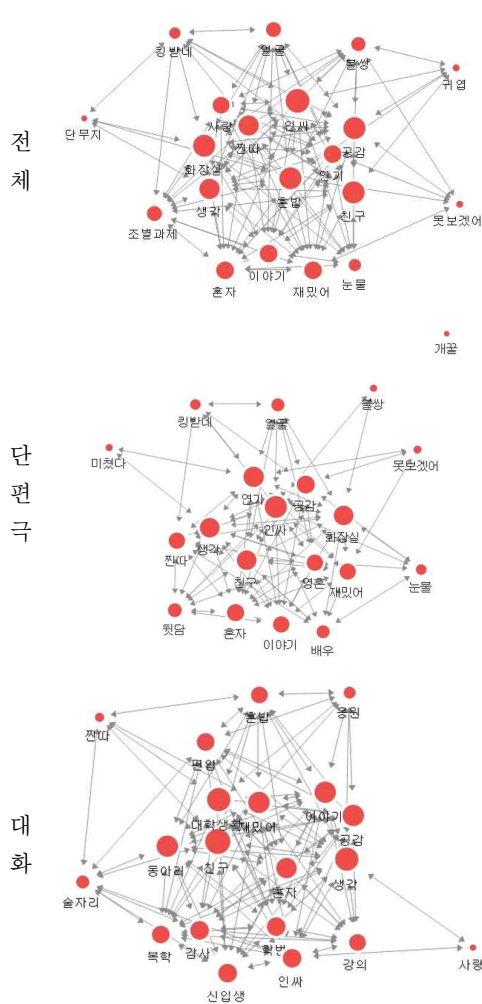


그림 3. 유형별 네트워크 지도

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인싸’라는 키워드에서 독특한 댓글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단편극 유형에서 인싸는 특히 아싸를 연기하는 배우가 실제로는 인싸처럼 보인다는 비판이나 불평, 혹은 꾸밈이 표현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인싸들이 아싸 연기하니 영혼이 소울이 느껴지는 군요!!”, “인싸가 아싸 연기 하는게 너무 티나네요 …”, “이런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특징

… 인싸 중의 인싸들 한마디로 기만 질”과 같은 댓글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단편극 유형의 ‘화장실’은 전체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밥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편극 콘텐츠에서 아싸 대학생의 혼밥 이슈가 유독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편극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싸’, ‘연기’, ‘생각’, ‘친구’, ‘화장실’, ‘공감’이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단편극에 대한 다양한 인지·정서적 반응과 관련되어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 중 ‘인싸’는 아싸 대학생을 연기한 배우와 관련된 맥락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화장실’은 전체 유형과 동일하게 아싸 대학생의 혼밥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대화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학내 아싸 현상에 관한 대화 콘텐츠의 주요 논의는 ‘친구’, ‘대학생활’, ‘생각’, ‘공감’, ‘동아리’, ‘이야기’, ‘재밌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주를 이루는 대화 콘텐츠에서는 대학생의 친구관계와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청자의 인지·정서적 반응도 더욱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화 유형의 중심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 원문으로는 “MT를 늦게 가서 … 저랑 좀 안맞고 문가질 싫어하는 느낌? 같은게 있어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요ㅠㅠ … 대학생활 핫팅.,”, “대학이야기 정말 공감이에요.,”, “저는 동아리 활동은 안했지만 … 공감이 되서 뭔가 내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너무 재밌어

요><”, “동아리도 편입생이라 적응하기 힘들지 않냐고 도와주고 ... 전적대보다 대학생활을 더 즐겁게 한 듯...”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화 유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친구’, ‘대학생활’, ‘생각’, ‘공감’, ‘동아리’, ‘이야기’, ‘재밌어’가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학생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논의와 관련되어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 중 ‘친구’, ‘대학생활’, ‘동아리’는 대학생의 적응 경험과 연계된 맥락에서 언급되었고, ‘생각’, ‘공감’, ‘이야기’, ‘재밌어’는 시청자의 반응이나 소통 맥락과 연결되었다.

토픽모델링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각각 3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표 4는 주요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5개 키워드를 자료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 4는 LDAvis를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주요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키워드를 토대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댓글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1): ‘친구’, ‘인싸’, ‘찐따’, ‘재밌어’, ‘이야기’, 토픽(2): ‘연기’, ‘공감’, ‘혼자’, ‘인간관계’, ‘화장실’, 토픽(3): ‘학번’, ‘눈물’, ‘복학’, ‘킹받네’, ‘불쌍’이 나타났다. 먼저 토픽(1)은 전체 유형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자료 유형이나 특정한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모든 댓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빈도분석 결과에서도 확

인한 바와 같이 ‘친구’, ‘인싸’, ‘찐따’는 아싸의 유의어 혹은 반의어로 사용되며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재밌어’와 ‘이야기’ 또한 자료 유형과 무관하게 댓글 전반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전체 유형의 토픽(1)은 시청자들이 대학 내 아싸 현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특정 의견이나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이었다.

다음 토픽(2)은 단편극 유형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단편극 콘텐츠의 댓글 반응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기’, ‘공감’, ‘혼자’는 주로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거나 느낀 점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는데, ‘인간관계’와 ‘화장실’의 경우 단편극에서 다루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이슈를 대표하는 키워드였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이 궁극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화장실’은 아싸 대학생의 화장실 혼밥 이슈를 다룬 단편극 콘텐츠가 많아 다수의 댓글 반응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토픽(3)은 대학 내 아싸 현상 동영상을 시청한 실제 대학생들의 댓글 반응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번’과 ‘복학’이 주로 댓글 작성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저도 20학번 내년 3학년 복학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18학번이고 이번에 2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내년에 복학하는 19학번인데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와 같은 댓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댓글 경향은 특히 브이

표 4. 유형별 주요 토픽 및 상위 키워드

순위	전체		
	토픽(1)	토픽(2)	토픽(3)
	전체 유형 대표 키워드	단편극 유형 대표 키워드	실제 대학생 댓글
1	친구	연기	학번
2	인싸	공감	눈물
3	찐따	혼자	복학
4	재밌어	인간관계	킹받네
5	이야기	화장실	불쌍
순위	단편극		
	토픽(1)	토픽(2)	토픽(3)
	배우 및 연기 피드백	또래관계 이슈	화장실 혼밥 이슈
1	연기	친구	화장실
2	배우	혼자	인싸
3	생각	인간관계	연기
4	못보겠어	공감	찐따
5	혼자	뒷담	킹받네
순위	대화		
	토픽(1)	토픽(2)	토픽(3)
	시청자 소감 및 응원	대학 적응 및 소속 이슈	대화 유형 고빈도 단어
1	이야기	친구	친구
2	생각	편입	찐따
3	대학생활	학번	재밌어
4	친구	신입생	인싸
5	실패	복학	공감

로그와 대화 콘텐츠에서 두드러졌는데, 해당 콘텐츠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실제로 대학생활을 경험한 시청자들이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토픽(3)에서는 ‘눈물’, ‘킹받네’, ‘불쌍’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대학생 시청자들이 대체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해

연민, 걱정,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단편극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1): ‘연기’, ‘배우’, ‘생각’, ‘못보겠어’, ‘혼자’, 토픽(2): ‘친구’, ‘혼자’, ‘인간관계’, ‘공감’, ‘뒷담’, 토픽(3): ‘화장실’, ‘인싸’, ‘연기’, ‘찐따’, ‘킹받네’로 나타났다. 토픽(1)은 배우의 연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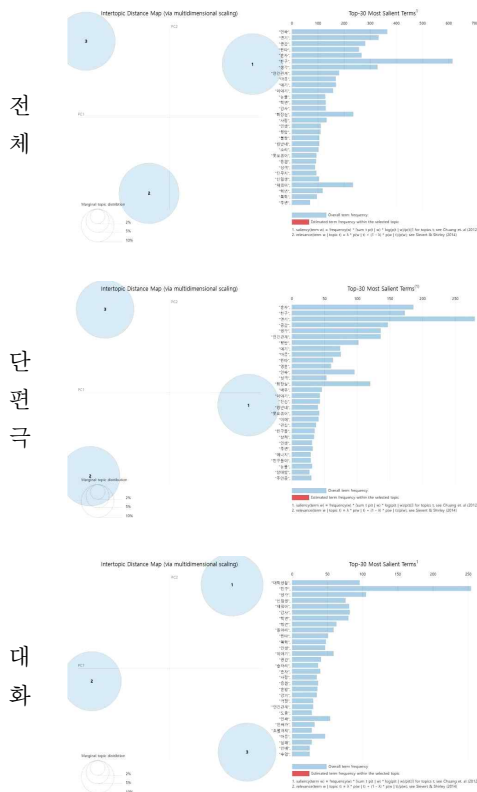


그림 4. 유형별 LDAvis 시각화

대한 시청자의 댓글 반응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편극 콘텐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배우의 연기력이라는 점에서 ‘연기’와 ‘배우’가 자주 언급되었고, 배우의 연기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소감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생각’, ‘못보겠어’, ‘혼자’와 같은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못보겠어’라는 반응은 배우의 실감 나는 연기에 시청자가 너무 깊이 몰입하여 심리·정서적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어 더 이상 시청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는 배우의 연기가 시청자의 감정 이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못보겠어’를 포함한 대표

적인 댓글 원문으로는 “공감성 수치 때문에 못보겠어요ㅠㅠ”, “연기 너무 잘한다.. 진짜 못보겠어 짜증나서”, “마음 아파서 못보겠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토픽(2)은 대학 내 또래관계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혼자’, ‘인간관계’, ‘공감’은 대학 내 아싸 현상이 대학생의 다양한 인간관계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대학 내의 친구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댓글에 드러난 시청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의 친구관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로감과 회의감도 함께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 미련 안 두려는 편이라 OO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네요. ... 예민한 말만 그 친구들에게서 더 들으니까 힘들고 ... 지치더라고요..ㅠ”, “인간관계 엄청 치이고 지쳐서 이제는 혼자 다니면서 ...”, “자발적으로 아싸면 인간관계 편하긴 함 ... 또 인간관계로 너무 가깝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도 딱히 없고..”와 같은 댓글에서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뒷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학 내 또래관계 이슈의 상당 부분이 관계적 갈등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또한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 원문으로는 “뒷담 깬 OO랑 친구라고 그동안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 하면서 더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우울증인가 그런 게 음”, “뒷담 주도자는 앞에선 서글서글하다 이중성에 토나올 거 같다”, “어딜가든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기싸움

파별 소문 뒷담 억지 리액션 같은 것들로 다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걸 깨달아서 ..." 등이 있었다.

마지막 토픽(3)은 아싸 대학생의 화장실 혼밥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화장실'을 중심으로 '인싸', '연기', '찐따', '킹받네'는 화장실 혼밥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특히 조롱과 멸시가 표현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었다. 여기서 '인싸'의 경우, 앞서 단편극 유형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로 낙담, 불평, 비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정서적 반응이 드러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패턴이 화장실 혼밥 이슈의 댓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픽(3)의 주요 댓글 원문으로는 "인싸는 화장실에서 대화를 하고 아싸는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다ㅜㅜ", "인싸씩들 알면서 놀리는거 킹받네..", "아싸가 아닌 찐따일거란 ...",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킹받네" 등이 있었다.

대화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1): '이야기', '생각', '대학생활', '친구', '실패', 토픽(2): '친구', '편입', '학반', '신입생', '복학', 토픽(3): '친구', '찐따', '재밌어', '인싸', '공감'이 나타났다. 토픽(1)은 유튜브의 대화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소감과 응원이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야기', '생각', '대학생활', '친구'는 대학 내 아싸 현상과 관련된 유튜브의 실제 경험과 그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가 공유됨에 따라 시청자의 풍부한 소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었다. 특히 '실패'의 경우 아싸 대학생활을 하는 유튜버를 위로하거나 응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실패한 대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추억이라 생각해요!",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무슨 선택을 하시더라도 응원합니다"와 같은 댓글에서 그러한 경향이 잘 드러났다.

다음 토픽(2)은 대학 적응 및 소속에 관한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편입', '신입생', '복학'은 대학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대학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집단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댓글 원문으로는 "편입생 출신입니다.. ... 혼자 밥먹고 혼자 구석에서 수업 듣고 ... ", "나는 혼자서 고기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제가 진짜 아싸 복학생이다.ㅋㅋ", "저는 19학번 신입생입니다. ... 다들 곧 친해질거다 그러는데 전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예요ㅠㅠ..." 등이 있었다.

마지막 토픽(3)은 대화 유형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특정한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찐따', '재밌어', '인싸', '공감'은 앞선 다른 분석에서도 대표적인 고빈도 단어로 확인된 바 있는데, 대화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댓글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다. 이는 전체 유형의 토픽(1)과 토픽(2)에서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유형별 대표 키워드 군집이 형성된 것과 유사한 패턴이었는데, 대화 유형의 경우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유형에서는 독립적인 토픽을 형성하지 못하고 대화 유형에서 별도의 군집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분석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대상으로 감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유형에서 486개, 단편극 유형에서 275개, 대화 유형에서 204개의 감정 단어가 추출되었다. 자료 유형별 주요 감정 단어는 TF-IDF를

기준으로 상위 20개를 선정하여 표 5에 정리하였다. 대학 내 아싸 현상과 관련하여 각각의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주요 감정과 댓글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자료 유형에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주요 감정 단어는 총 12개(힘듦, 눈물, 사랑, 재밌는, 행복, 도움, 기대, 걱정, 감사, 당당하

표 5. TF-IDF 상위 20개 감정 단어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1	힘듦	0.382223	힘듦	0.359538	힘듦	0.508732
2	눈물	0.367621	눈물	0.252054	도움	0.292348
3	사랑	0.324214	재밌는	0.18979	사랑	0.23356
4	재밌는	0.185585	상처	0.148655	행복	0.218492
5	행복	0.174405	당당하게	0.139901	걱정	0.216211
6	도움	0.149502	행복	0.107273	눈물	0.209556
7	기대	0.132513	오해	0.102397	재밌는	0.180821
8	걱정	0.099966	사랑	0.082518	기대	0.150889
9	감사	0.091674	걱정	0.079513	감사	0.135616
10	상처	0.082325	이상하게	0.078767	스트레스	0.095387
11	당당하게	0.078149	기대	0.07631	긍정적	0.094306
12	용기	0.064558	편안한	0.066014	포기	0.080599
13	긍정적	0.057762	도움	0.063591	용기	0.066014
14	스트레스	0.052923	흥미	0.063591	이상하게	0.064479
15	오해	0.050513	불편	0.058771	부담	0.057232
16	이상하게	0.050513	호감	0.057762	우울	0.057232
17	꿀잼 ⁸⁾	0.040773	부담	0.055313	당당하게	0.056583
18	부담	0.039692	자신감	0.050873	실수	0.048359
19	불쌍	0.039692	존중	0.050873	꿀잼	0.047153
20	불편	0.038222	감사	0.049511	편안한	0.045205

8) 매우 재미있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게, 이상하게, 부담)가 확인되었다. 단일 감정 단어의 TF-IDF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힘듦'과 '눈물'이 꽤 큰 격차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감정 분포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정서적 반응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전체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단편극 유형(12:8)과 대화 유형(11:9)에서 오히려 긍정 단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긍정 단어의 경우 대체로 동영상 속 인물을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 댓글 원문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네요. ... 정말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 “도움될까 싶어 구독도 하고 밝은 기운도 얻으며 늘 응원했어요”, “본 것 중에 제일 공감되는 편이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해요!!! ㄱ” 등이 대표적이었다. 단, 긍정 단어 중 ‘사랑’, ‘재밌는’, ‘꿀잼’은 주로 가벼운 감상평을 남기거나 팬심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12개의 주요 감정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 단어를 자료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유형 간 감정 단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단어를 확인했을 때 전체·단편극 3개(상처, 오해, 불편), 전체·대화 4개(스트레스, 긍정적, 용기, 꿀잼), 단편극·대화 1개(편안한)의 감정 단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나타난 감정 단어는 전체 유형에서 1개(불쌍), 단편극 유형에서 4개(흥미, 호감, 자신감, 존중), 대화 유형에서 3개(포기, 우울, 실수)가 확인되었다. 단, 이처럼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나타난

감정 단어나 자료 유형 간에 일치하는 감정 단어들은 대부분 단순빈도와 TD-IDF 가중치가 매우 낮아 명확히 구별되는 주요 감정이나 새로운 댓글 경향을 설명하진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에는 총 4가지 기법(빈도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이 활용되었고, 댓글 경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에 따라 자료 유형을 3가지(전체 유형, 단편극 유형, 대화 형)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시청자 대부분은 동영상 콘텐츠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빈도분석 결과상 ‘공감’이 모든 자료 유형의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힘듦’, ‘눈물’, ‘걱정’, ‘상처’, ‘불쌍’과 같은 주요 감정 단어나 ‘미쳤다’와 같은 감탄사가 공감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단편극 유형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못보겠어’의 경우, 극의 상황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괴로움을 느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못보겠어’는 시청자가 동영상을 보고 이차적인 정서 경험(예: 수치심, 부끄러움, 안타까움 등)까지 하게 되

었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렬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편극 콘텐츠의 특성상 배우가 현실의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훨씬 깊은 감정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TF-IDF 상위 100개의 키워드 중 시청자의 과몰입이나 심리·정서적 재경험을 표현한 또 다른 키워드로는 ‘PTSD(38위; 117.5025)’와 ‘항마력(62위; 86.97923)’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항마력이란 어색하거나 민망한 상황을 견뎌내는 정신적 힘을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로(나무위키, n.d.), 댓글에서는 “항마력이 떨어져 보면서 소리를 계속 줄였다...”, “항마력 떨어져 못보겠어요 ㅠㅠ”와 같이 쓰이고 있었다.

이처럼 댓글 전반에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공감 반응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 전체 유형의 토픽(3)을 통해 실제 대학생들의 댓글 반응 또한 상당수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날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의 소재가 아니라 실재하는 사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집단의 고유한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현실적 기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이는 개인이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집단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사회적 비교 과정(Festinger, 1954)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또래의 사회적 자원(예: 친화력, 집단활동 참여 빈도, 평판 등)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아싸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Jansen et al., 2022). 또한, 낙인이론(Becker, 1963)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이 특정 개인을 아싸로 규정하는 과정이 결국 그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아싸’라는 레이블이 부여되는 순간 타인의 기대와 행동이 달라지고, 해당 개인은 주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여 소극적이고 은둔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Phelan et al., 2014).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학 내 아싸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고립 상태를 넘어, 또래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낮은 사회적 지각과 라벨링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및 타인 행동의 변화라는 두 경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지속적 주변화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은 가벼운 유희적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빈도분석과 감정분석 결과에 나타난 ‘재밌어’, ‘재밌는’, ‘꿀잼’이 쓰인 맥락을 확인한 결과, 대중들 사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은 하나의 웃기고 재밌는 유튜브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아싸 대학생이 혼자 밥을 먹는 문제를 다룰 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단편극 콘텐츠의 경우 아싸 대학생이 혼자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먹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이들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학교 생활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체 유형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 ‘화장실’과 ‘혼밥’의 상호 연결 중심성 지수는 상위 20개 키워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단편극 유형의 토픽모델링에서는 화장실 혼밥 문제와 관련된 군집으로 토픽(3)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단, 이 같은 다소 과장된 연출은 대학 내 아싸 현상이 단순한 유희적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아싸 대학생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단편극 유형의 토픽(3)에 포함된 '찐파', '킹받네'와 전체 유형의 TF-IDF 20위에 해당하는 '단무지'는 주로 아싸 대학생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었다. 이러한 비하와 조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댓글 원문으로는 “밥도 혼자 못 먹는게 찐파”, “단무지 없이 먹는 거 킹받네”, “화장실에서 단무지를 빼야 진정한 아싸임 단무지 소리 엄청 큼” 등이 있었다. 이러한 댓글에서 드러나듯, 한국 대학생 문화에서 ‘화장실’과 ‘혼밥’은 소외된 개인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상징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의 소외 현상을 다룬 탐색적 텍스트마이닝 연구에서도 ‘화장실’과 ‘혼밥’이라는 키워드는 ‘유희적 콘텐츠’, ‘비하적 관점’이라는 토픽과 함께 도출된 바 있다(Song et al., 2023). 이처럼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신조어인 ‘아싸’의 주요 용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 안에서 대학생의 관계적 문제를 유희적으로 표현할 때는 유독 ‘아싸’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송도연 등, 2023).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대학생들의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매체에서 소비되는 가벼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 드러난 희화화 경향은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일시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축소

시켜,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 정도로 계속 소비된다면, 실제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고통은 사회적 공론장에서 점차 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학술적 논의 또한 정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대중의 문제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 교육적 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술계와 대학 현장에서는 아싸 현상이 지닌 구조적 · 문화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모두에서 핵심 키워드로 나타난 ‘인싸’는 주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인지 · 정서적 반응과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싸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 인싸가 특히 시청자의 비교 의식이나 낙담, 좌절, 불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 · 정서적 경험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된 것인데, 예를 들어 “인싸는 학교 말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싶고 아싸는 친구 없어서 외로워서 집 가고 싶고 ...”, “와 진짜 나다 인싸들 사이있으면 괜히 말 걸었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은 기분”, “더욱 슬픈건 인싸들은 이거 보고 그냥 웃어넘긴다는거...” 등과 같은 댓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단편극 유형의 댓글에서는 시청자가 느끼는 위화감이나 반발감도 드러났는데, 이는 단편극 배우가 현실에서는 인싸일 것으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댓글로는 “현실에서는 인싸니까 연기자를 하겠지”, “역시 아싸인척하는 인싸... ㅠㅠ”, “남자

애가 들어주는거 보면 인싸네 이렇게 또 아싸를 뺏겼다.”, “기만하지마라 ... 그 정도면 인싸다.” 등이 있었다. 이는 ‘아싸’라는 용어가 단순히 고립이나 은둔, 소외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싸’는 정체성 도구(identity tool)의 역할을 하여 관계결핍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속감의 결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공감과 유대감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Aslanov et al., 2022; Camp & Flores, 2024). 이러한 맥락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비교이론이나 낙인이론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일반적 고립이나 낙인의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싸’가 대학생 집단 특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정체성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실제 아싸의 입장에서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단편극 콘텐츠가 자신들의 결핍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잘못 소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 도구로서의 기능은 관계망 속에서의 위치를 중시하는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와 결합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아싸’는 단순한 상태라기보다 관계망 내 취약성과 정체성 정립의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접한 시청자들이 인싸의 삶과 비교하며 낙담하거나 인싸에 대해 반발감을 표출하는 모습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하면서도 그 부담감으로 인해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결핍과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백, 신혜성, 2022). 이처럼 ‘아싸’는 단순히 사회적 철수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비자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정체성 기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대학 내 아싸 현상은 또래 갈등이나 관계 미숙과 같은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편극 유형 토픽(2)의 주요 키워드(친구, 혼자, 인간관계, 공감, 뒷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맥락에서 타인의 성향을 알아가고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많은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관계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학 내의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중들의 이 같은 인식과 경험은 ‘스트레스’, ‘부담’, ‘불편’과 같은 감정 단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감정 단어를 포함한 댓글 원문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신경쓰는게 사실 사람에 따라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상대방 맞춰준다고 내기 다 빠르고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움 ... 굳이 내가 나서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고..”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단편극 유형의 빈도분석 결과에 나타난 ‘영혼’을 통해 대학 내의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에 피로와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상적인 상호작용만을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이 잘 드러난 댓글 원문으로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데 ... 찼

친 아닌 이상 대개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돼서 영혼 리스라는 얘기도 자주 듣는 듯..ㅎㅎ”, “영혼없다 소리 매일 듣는거 ... 겉으로라도 상호작용 되면 되는거 아닌가”, “나다 학교 가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하는데 전부 비즈니스고 ... 영상의 주인공이 영혼없는 리액션 할 때 저항없이 웃어버림 나랑 똑같아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혼 없는’ 상호작용 양상은 서구권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고립 현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서구권의 논의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이나 관계망 단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e.g., Cala & Ortega, 2024; Conti et al., 2023; Giovenco et al., 2022),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되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보다는 최소한의 형식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아싸 현상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와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Kato et al., 2019)하는 반면, 한국의 아싸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일정 부분 고려하는 적응적 전략을 취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발견은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기대 구조가 결정적 맥락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향후 연구에서 한국적 현상을 서구권 혹은 일본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 아직 관계적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박미정, 오두남, 2017; 이민선, 채규만, 2012), 급격히 확장된 대인관계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에 매우 취약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류진혜, 2002). 특히 이 같은 대인관계 문제가 개인의 고립 및 은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김성아, 2023; 김성아 등, 2022; 노가빈 등, 2021; 보건복지부, 2023),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서의 부적응이나 또래 갈등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집단따돌림은 개인을 모임에서 배척하거나 홀로 고립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강영신, 박주영, 2018),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이 관계적 폭력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대학생의 경우 집단으로부터 멀어져 홀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는 미숙한 관계적 기술로 인한 부적응이나 또래 갈등 및 따돌림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 학술적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립 및 은둔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예: 미성숙한 관계적 기술, 집단따돌림, 개인적 성향)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은 대학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화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두드러졌는데, 대화 유형에서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대학 관련 주제어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

화 유형에 드러난 대학생활 관련 이슈 중 하나는 토픽(2)의 ‘신입생’, ‘편입’, ‘복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 적응 및 소속에 관한 이슈에 해당한다. 즉,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신입생과 편입생이 처음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김진희, 황은희, 2012; 김광현, 강성배, 2016; 송도연 등, 2023; Laanan, 2007), 오늘날 대학에서는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초기의 부적응으로 인해 집단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대학 내의 사교모임과 학업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빈도분석에서 도출된 전체 유형의 ‘조별과제’와 대화 유형의 ‘술자리’, ‘동아리’라는 키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 내의 사교모임과 학업활동이 집단 구성원과의 연결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조별과제’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첫째는 아싸 대학생에게 조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조원을 제안하거나 다른 조의 합류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아싸일 때 조별과제 눈동자 지진인데 ...”, “조별과제 진짜 랜덤으로 했으면ㅠ”, “아 혼강할때 개인과제라면 모를까 조

별과제가 참 험난한데 ...”와 같은 댓글에서 이러한 고충이 잘 드러나 있었다. 둘째는 조별과제 수행 과정이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단편극 유형 토픽(2)에서 언급된 관계적 갈등 이슈와도 연결되는데, “조별과제가 제일 짜증났음..”, “갑자기 짜증나네 4명에서 하는 조별과제 나이 좀 먹었다고 안하려고 지랄을 하던 그 두 명 결국 교수님한테 말하고 들어서 해서 A는 받았지만 아오..”, “어으 조별과제없는 교양만 듣고싶다”와 같은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조별과제를 위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술자리’와 ‘동아리’는 대학 내의 사교모임이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하였는데, 두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에서는 OT나 MT와 같은 집단활동 또한 자주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 원문을 살펴보면, “애매한 새내긴데요ㅠㅠ 저번에 술자리 한 번 안 나갔더니 친구들이 아주 무리를 만들어왔더라구요..”, “OT랑 MT 술자리 같은 거 안 가고 싶는데 그러면 진짜 아싸 빼박이겠쥬..?”, “OT 안 가서 신입생 때 내내 친구가 없어서 좀 힘들었었어요.. ... 다른 동아리 찾아보시면 됩니당” 등이 있었다. 특히 술자리의 경우 한 개인의 관계 단절이나 고립을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인식되곤 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찐따들한테 술자리 권유는 하지않아..”, “진짜 찐따들은 애초에 술자리가 없어..”, “아싸가 술자리가 있어?”처럼 아싸 대학생에게는 술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다소 자조 섞인 한탄이 드러나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대

학 혹은 학과 차원의 공식 행사나 모임이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닌 집단의 소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처럼 인식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고유의 대학문화를 지적하기도 하였다(강영신, 박주영, 2018; 송도연 등, 2023).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활용하여 대학생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의 주요 이슈와 사회적 담론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비학술적 용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실제 언어와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을 탐색했다는 현상학적·맥락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기존 학술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대학생 집단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적 뉘앙스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고립 및 은둔의 경우 한 번 그 패턴에 빠져들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으로 인해 초기의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층 초입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최초로 탐색한 본 연구는 청년 전체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시청자가 직접 작성한 댓글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인식을 폭넓게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자기 보고 설문 및 상관분석을 활용한 실태조사 중심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실에 가까운 인식과 풍부한 정서적 반응을 포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댓글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분석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학술 연구의 자료수집 범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이용자의 연령, 사회적 배경, 관심사 등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플랫폼으로, 이를 활용한 분석은 단순히 대학생 집단의 내부적 인식에 국한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시각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대학 내 고립 및 은둔 문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발견은 대학에서 학생간의 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입생이나 편입생, 복학생의 경우 집단 내 적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과 차원에서 단순히 OT나 MT와 같은 공식 행사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또래 집단 내의 심리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관계 형성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학생상담센터 내에 특수 목적(예: 초기 적응 지원) 비대면 상담 채널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유형과 단편극 유형의 주요 키워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전체 유형만의 고유한 댓글 경향과 새로운 이슈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두 유형에서 추출된 전체 단어수와 주요 키워드별 빈도수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겹치는 키워드가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명확하게 변별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를 기준으로 자료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콘텐츠 유형별 주요 이슈와 댓글 경향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특유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적 전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는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자료수집과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아싸’가 곧바로 고립 및 은둔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기존 학계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철수와 관련된 현상을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개념적 합의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아싸’라는 용어 사용의 적합성에 여전히 제한점이 남아 있다. 더 나아가 ‘아싸’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일상 언어이자 사회적 은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학술적 개념으로 논증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아싸 현상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학술 용어(예: 고립, 은둔, 소외, 철수 등)와의 결합·차별화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논증함으로써, 생활 세계 언어와 학술 개념 간의 다리

를 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의 특징이나 주요 이슈, 패턴 등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 기술적 분석의 수준을 넘어서는 심층적 해석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석 자료가 유튜브라는 단일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어 표집의 외적 타당도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드와 주요 발견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인들(예: 사회적 지지, 학업성취도)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분석대상을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 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함으로써 텍스트 데이터의 외적 타당도를 보강하고,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또한 중요한 후속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는 댓글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대학생의 의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댓글은 특정 집단의 의견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표집의 대표성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표집의 외적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댓글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 용어, 신조어, 줄임말, 합성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도 빈번하여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상당수의 단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를 일부 보정하였으나, 불용어 및 동의어 처리 과정에서는 3명의 박사과정 연구자가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 있어, 분석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댓글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오타와 비표준적 표현들을 완전히 보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댓글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자체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대안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된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예: YouTube & Article Summary powered by ChatGPT, 유튜브 듀얼자막)은 동영상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여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영신, 박주영 (2018). 대학생 파도림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9(1), 269-288.
<https://doi.org/10.15703/kjc.19.1.201802.2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31.). *과기정통부, 「2022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sit.go.kr/bbs/view.do?sCode=user&nttSeqNo=3182886&bbsSeqNo=94&mId=113&mPid=238>
- 곽미선, 박지영 (2024).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195-218.
<http://doi.org/10.21509/KJYS.2024.08.31.8.195>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136219
- 김건희, 황은희 (2012).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 대학생활의 적응 및 위기 극복.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5), 123-142.
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10948
- 김광현, 강성배 (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연구*, 10(3), 253-293.
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49807
- 김도희 (202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197-223.
<http://doi.org/10.22251/jlcci.2024.24.4.197>
- 김동성, 김중우 (2014).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를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지능정보연구*, 20(1), 195-21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2984>
- 김민주, 이아라 (2021). 대학생의 객관적 · 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대처양식의 군집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및 대인관계 문제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8(9), 89-114.

- <http://doi.org/10.21509/KJYS.2021.09.28.9.89>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http://www.kihasa.re.kr/publish/regular/hsu/view?seq=54406&volume=54402>
 김성아, 노현주, 김기태, 김문길, 안수란, 신영규, 임덕영, 정세정, 함선유 (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154>
 김은영, 한승우 (2023). 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객관적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4), 195-204.
<http://doi.org/10.5762/KAIS.2023.24.4.195>
 김인식, 김자미 (2021.01.21.). 유튜브 알고리즘과 확장편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서울.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30792>
 김주연 (2021).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통계청 통계개발원.
http://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13&bid=12314&act=view&list_no=415475&tag=&nPage=1&ref_bid
 김지은, 정미란 (2022). 코로나학번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1(2), 230-240.
<http://doi.org/10.12934/jkpmhn.2022.31.2.230>
 김지현, 관후용, 황석현, 민경환 (1997).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 체험. 심리과학, 6(2), 75-93.
<http://m.riss.kr/link?id=A2106616>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http://ggwf.gg.go.kr/archives/41976>
 김태경, 최희련, 이홍철 (2016).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핀테크 기술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1), 670-681.
<http://doi.org/10.5762/KAIS.2016.17.11.670>
 나스미디어. (2023). NPR 2023 인터넷 이용자 조사. <http://www.nasmedia.co.kr/?p=7385>
 남길임, 송현주, 최준, 이수진, 서은영, 백미경, 신원식, 정희운, 김해은 (2019). 2019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searchOrder=years&report_seq=1104&pageIndex=1
 남춘호 (2016). 일기자료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가능성 검토. 비교문화연구, 22(1), 89-135.
<https://hdl.handle.net/10371/95582>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https://doi.org/10.20970/kasw.2021.73.2.003>
 류진혜 (2002).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지도방안. 학생생활연구, 9, 83-95.
<http://m.riss.kr/link?id=A75012545>
 박나영 (2020). 한국어 신조어에 대한 고찰: 2015년~2019년 한국사회 인기 신조어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 오두남 (2017).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1), 423-43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

- 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
=ART002285167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7157>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복지개발원.
- 박준형, 오효정 (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35-258.
<http://doi.org/10.16981/kliss.48.4.201712.235>
- 박재서, 이수민, 조성봉 (2021). COVID-19 상황에서 경험하는 대학생의 고립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453-487.
<http://doi.org/10.21509/KJYS.2021.10.28.10.453>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54654>
- 보건복지부. (2023.12.1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share
- 배상훈, 윤수경, 전수빈, 조성범 (2017). 한국 대학의 인재상 탐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1), 141-16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2817>
- 백영민 (2020). R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백형의, 양정빈, 김자영 (2022). 코로나 19 발생 후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 17(6), 1131-1144.
<http://doi.org/10.34163/jkits.2022.17.6.005>
- 송도연, 박은정, 강영신 (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대학 내 집단따돌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네이버 지식 iN Q&A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2), 29-5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09098>
- 송태민, 송주영 (2016). R을 활용한 소셜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서울: 한나래.
- 신지원, 양현, 박혜연 (2024).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건강과 시간 관리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32(3), 89-10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19867>
- 신효필, 김문형, 박수지 (2016). 한국어 감정분석 코퍼스를 활용한 양상정보 기반의 감정분석 연구. *언어학*, (74), 93-114.
<http://doi.org/10.17290/jlsk.2016..74.93>
- 양순미, 김성봉 (2023).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한 국내 대학생 상담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문화와융합*, 45(8), 113-122.
<https://www.doi.org/10.33645/cnc.2023.08.45.08.113>

- 양혜진 (2020). 코로나 19 상황에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문화기술의 융합*, 6(3), 135-143.
<https://www.doi.org/10.17703/JCCT.2020.6.3.135>
- 온병원, 박상민, 나철원 (2018.05.11.). KNU 한국어 감성사전 [Data set].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Data Intelligence Lab.
<http://dilab.kunsan.ac.kr/>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boardrrView.do?menu_nix=40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741&seltab_idx=0&edomweivgp=R
- 유연수, 이양희 (2001). 사회적 고립 아동의 사회기술훈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22(4), 51-6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3638>
- 유지영, 김우경 (2020). 연구주제 분석을 통한 한국창작무용 경향 탐색: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6), 53-60.
<http://doi.org/10.21184/jeia.2020.8.14.6.53>
- 유현경, 윤명숙 (2023). 코로나 19 시기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3), 132-156.
<http://doi.org/10.24301/MHSW.2023.09.51.3.132>
- 윤영훈 (2023). 청년세대 신조어를 통해 재고하는 기독 청년 사역의 대안들. *신학과 실천*, 87, 777-809.
<http://doi.org/10.14387/jkspth.2023.87.777>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方略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54447>
- 이선아 (2017). 학사경고 대학생의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0(3), 227-25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68998>
- 이성직, 김한준 (2009). TF-IDF의 변형을 이용한 전자뉴스에서의 키워드 추출 기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4(4), 59-7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91877>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http://doi.org/10.3743/KOSIM.2014.31.4.049>
- 이유리, 권호인 (2023).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1), 147-170.
<http://doi.org/10.20406/kjcs.2023.2.29.1.147>
- 이정락, 허창덕, 정재훈, 정예은 (202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ODA 시행기관의 법적 기반 및 사업 유형 특성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1), 301-326.
<http://doi.org/10.22340/seps.2022.02.12.1.301>
- 이혜선, ZHOU NAN, 조재희 (2021). 코로나 19 상황 속 대학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연구: 학과 소속감과 학업지속의도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65(2), 5-40.
<http://doi.org/10.20879/kjcs.2021.65.2.001>
- 임동훈 (2015).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파주: 자유아카데미.
- 정백, 신혜성 (2022). 대학생의 '인싸 (Insiders)'에 관한 연구: 사회관계 및 삶의 만족을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10), 1979-1986.
<http://doi.org/10.33097/JNCTA.2022.06.10.1979>
- 정옥분, 정순화, 박연정, 김정은 (2008). 국내 집단따돌림 관련연구의 경향분석. *인간발달연구*, 15(1), 115-13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32002>
- 정유미, 김정환, 박종화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보도분석: 부산 지역일간지와 중앙일간지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4), 7-32.
<http://doi.org/10.47020/JLC.2021.11.25.4.7>
-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http://doi.org/10.20970/kasw.2022.74.4.005>
- 조수곤, 김성범 (201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산업공학 학술지의 논문 주제어간 연관관계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38(1), 67-7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38111>
- 조수선 (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2), 65-8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71083>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0147>
- 최재서, 정유미, 김정환 (2023).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관한 유튜브 뉴스 및 댓글 연구: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의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7(4), 123-169.
<http://doi.org/10.47020/JLC.2023.11.27.4.123>
-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87204>
- 한규석 (1996).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현황 및 [세계화] 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1997(1), 87-172.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bid=0019&tag=&act=view&list_no=335906
- Aslanov, I. A., Sudorgina, Y. V., & Kotov, A. A. (2022). The explanatory effect of a label: Its influence on a category persists even if we forget the label. *Frontiers in Psychology*, 12,

745586.
<https://psycnet.apa.org/doi/10.3389/fpsyg.2021.745586>
- Barthelemy, M. (2004). Betweenness centrality in large complex networks.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B*, 38(2), 163-168.
<https://doi.org/10.1140/epjb/e2004-00111-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Glencoe.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https://dl.acm.org/doi/10.5555/944919.944937>
- Cala, V. C., & Ortega, F. (2024). Understanding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loneliness in Southern Spanish youth.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48(3), 547-568.
<https://doi.org/10.1007/s11013-024-09861-9>
- Camp, E., & Flores, C. (2024). Playing with labels: Identity terms as tools for building agenc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74(4), 1103-1136. <https://doi.org/10.1093/pq/pqae092>
- Conti, C., Lanzara, R., Rosa, I., Müller, M. M., & Porcelli, P. (2023).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erceived loneliness in college stud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stay-at-home period: a longitudinal study. *BMC Psychology*, 11, 60.
<https://doi.org/10.1186/s40359-023-01099-1>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https://doi.org/10.1177/002214650905000103>
- Cyram Inc. (2022). *NetMiner* (Version 4.5) [Computer software].
<https://www.netminer.com/>
- DataReportal. (2025, March). *YouTube users, stats, data & trends for 2025*.
<https://datareportal.com/essential-youtube-stats>
- Delisle, M. A. (1988). What does solitude mean to the aged?. *Canadian Journal on Aging / 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7(4), 358-371.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1485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 Company.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Giovenco, D., Shook-Sa, B. E., Hutson, B., Buchanan, L., Fisher, E. B., & Pettifor, A. (2022). Social isol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rn US college students in the era of COVID-19. *PLOS ONE*, 17(12), e027948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79485>
- Hamza, C. A., Ewing, L., Heath, N. L., & Goldstein, A. L. (2021). When social isolation is nothing new: A longitudinal study on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COVID-19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and without

- preexisting mental health concern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63(1), 20-30.
<https://psycnet.apa.org/doi/10.1037/cap0000255>
- Jansen, M., Boda, Z., & Lorenz, G. (2022). Social comparison effects on academic self-concepts-Which peers matter most? *Developmental Psychology*, 58(8), 1541-1556.
<https://doi.org/10.1037/dev0001368>
- Kato, T. A., Kanba, S.,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427-440.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pcn.12895/full>
- Kim, Y. M., & Delen, D. (2018). Medical informatics research trend analysis: a text mining approach. *Health Informatics Journal*, 24(4), 432-452.
<https://doi.org/10.1177/1460458216678443>
- Laanan, F. S. (2007). Studying transfer students: Part II: Dimensions of transfer students' adjustment.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1(1), 37-59.
<http://doi.org/10.1080/10668920600859947>
- Lazer D, Pentland A, Adamic L, Aral S, Barabasi AL, Brewer D, Christakis N, Contractor N, Fowler J, Gutmann M, Jebara T, King G, Macy M, Roy D, Van Alstyne M. (2009).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Science*, 323(5915), 721-723.
<https://doi.org/10.1126/science.1167742>
- Listly. (2024). *Listly* [Browser extension].
<https://www.listly.io/ko/>
- Lukács, A. (2021). Ment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social isolation. *Europ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8(1), 22-29.
<https://psycnet.apa.org/doi/10.1027/2512-8442/a000065>
- Lucas, C., Nielsen, R. A., Roberts, M. E., Stewart, B. M., Storer, A., & Tingley, D. (2015).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Analysis*, 23(2), 254-277.
<https://doi.org/10.1093/pan/mpu019>
- Nassiroussi, A. K., Aghabozorgi, S., Wah, T. Y., & Ngo, D. C. L. (2014). Text mining for market prediction: A systematic review.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1(16), 7653-7670.
<https://doi.org/10.1016/j.eswa.2014.06.009>
- Phelan, J. C., Lucas, J. W., Ridgeway, C. L., & Taylor, C. J. (2014). Stigma, status, and population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03, 15-23.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3.10.004>
- Posit Team. (2022). *RStudio* (Version 2022.02.0+443) [Computer software].
<https://www.rstudio.com/>
- Ramos, J. E. (2003, December).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Using-TF-IDF-to-Determine-Word-Relevance-in-Queries-Ramos/b3bf6373ff41a115197cb5b30e57830c16130c2c?utm_source=direct_link
- Roberts, C. W. (Ed.). (1997).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Routledge.
- Sakai, M., Ishikawa, S.-I., Sato, H. & Sakano, Y. (2004) Development of hikikomori behavior

- checklist (HBCL)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apanese Journal of Counselling Science*, 37, 210-220.
<https://doi.org/10.1037/t68812-000>
- Shiovitz-Ezra, S., & Rozen, R. (2024). Alone but not lonely: The concept of positive solitude: Commentary on “Let there be light: The moderating role of positive sol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by Ost-Mor et al.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36(8), 621-624.
<https://doi.org/10.1017/S1041610223004416>
- Song, D. E., Park, E. J., & Kang, Y-S. (2023, August). How does ‘eating alone’ relate to ‘alienat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Poster presentation].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 Statista. (2025, February). *Most popular social networks worldwide as of February 2025, by number of monthly active user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2014/global-social-networks-ranked-by-number-of-user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295X.96.3.506>
- Weinstein, N., Vuorre, M., Adams, M., & Nguyen, T. V. (2023). Balance between solitude and socializing: everyday solitude time both benefits and harms well-being. *Scientific Reports*, 13(1), 21160.
<https://doi.org/10.1038/s41598-023-44507-7>
- Zhang, J., & Luo, Y. (2017, March).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in social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2017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ling, Simulation and Applied Mathematics (MSAM2017), Atlantis Press, Advances in Intelligent Systems Research.
<https://doi.org/10.2991/msam-17.2017.68>

논문 투고일 : 2025. 08. 06

1 차 심사일 : 2025. 09. 10

게재 확정일 : 2025. 10. 16

Examining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mong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Term “Assa”: A Text Mining Analysis of YouTube Comments

Do Eon Song Seong Eun Jeon Young-Shin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key issues surrounding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mong university students by analyzing 19,876 YouTube comments containing the term “Assa”. Comments were collected from 64 videos over the past decade. To explore differences in comment trends according to video content, the data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Total, Short Plays, and Conversation—for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salient keywords in each category, based on frequency and network text analysis, were as follows: in the Total category, “friend”, “Inssa”, and “empathy”; in the Short plays category, “acting”, “empathy”, and “restroom”; and in the Conversation category, “friend”, “college life”, and “story”. Topic modeling identified three dominant themes for each category. Total—(1) representative keywords from the total, (2) keywords from the Short plays, and (3) actual student comments; Short Plays—(1) feedback on the actors and their acting, (2) peer relationship issues, and (3) eating alone in a restroom stall; Conversation—(1) viewer impressions and encouragement feedbacks,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nd (3) frequently used words by conversation types. Emotion-related terms such as “struggle,” “tears,” “love,” “fun,” and “happiness” were consistently present across all categorie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offering practical insights for future policy-making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ssa, YouTube comments, text-mining